

## ‘돈 되는 오리’

HPAI로 인해 오리 산업에 어려움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HPAI 발생농장은 물론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더욱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듯이 재 입식의 그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오리농가에서 농장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리 사양관리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오리의 영양과 사료

오리는 다른 가축보다 체구가 적으면서, 성장이 빠르고, 알을 생산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영양소가 요구된다. 하지만 소화기관이 짧아 사료가 소화기관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으므로 조사료의 이용률이 낮다. 장내에서 세균에 의하여 영양소의 합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동시에 한정된 장소에서 사육되기 때문에 야외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자유롭게 섭취할 수 없다. 때문에 오리의 생산능력에 따라 인위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해야 한다.

## 배합사료의 종류와 특성

오리의 사료배합은 오리의 품종이나 사육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영양소를 균형 있게 배합하여야 하므로, 배합사료의 종류와 특성을 잘 알고 배합해야 한다.

### 산란오리 사료

산란오리 사료는 육성기 사료와 산란기 사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오리 생산 형태가 알보다는 고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어린 오리 사료는 부화 직후에 먹이는 사료이므로 특히 주의하여 배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백질은 20% 이상, 아미노산의 요구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며,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충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섬유질 함량이 낮고 에너지 함량이 높으면서 소화기 쉽도록 해야 한다. 지나치게 가는 분쇄는 하지 않으며, 원료 또는 배합사료에 곰팡이가 없도록 하고 첨가제는 균일하게 배합하도록 한다.



육성오리 사료는 육성 전기, 후기 사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육성 오리 사료는 어린 오리 사료보다 단백질이나 에너지 함량이 낮으므로 어린 오리 사료보다는 곡류 및 단백질 사료는 줄이고 강피 사료를 늘린다. 육성 사료로 교체할 때는 일시에 교체하지 말고 7~10일간에 걸쳐 서서히 실시한다. 육성 전기 사료의 단백질 수준은 17~18% 정도이고, 육성 후기 사료의 단백질 수준은 14~16% 정도이다.

산란오리의 경우 육성 기간은 수익이 없는 기간으로서 농가에서는 가능하면 사료비를 절감하려는 경향이 많으며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산란 기간에 필요한 영양소를 축적하고 체성장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육성 기간을 소홀히 하면 후기 산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영양소 결핍이나 사료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산란 시기는 오리 체중, 품종, 점등프로그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0~22주령부터 산란을 하기 시작한다. 산란기 사료의 경우 단백질 수준은 15~18% 정도이고, 난각 형성을 위해 칼슘이 3.0~4.0%로 높은 수준 들어가 있다. 또한, 산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가도록 배합하여야 한다.

### 육용오리 사료

오리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육용오리 사료는 단기간에 고도의 체중 증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백질 요구량이 많다.

전기 사료는 22% 이상의 고단백 사료로 초기발육을 증가시키는 사료이며, 후기 사료는 단백질 수준은 18~20%로 낮추고 에너지 함량은 3,000kcal 이상으로 증가시킨 사료이다.

육추용 사료의 단백질 함량은 22% 정도가 적당하며 처음의 2주간은 하루 5~6회 급여하고 차츰 횟수를 줄여서 1개월 후에는 3회로 급여한다. 오리 사료구입이 어려우면 약 2주 동안은 육계 전기사료를 급여하고, 이후 출하 시까지는 육계 후기사료를 급여하거나 육계 후기사료와 자급 사료를 혼용하여 급여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육성 첫 2주간은 최소한 단백질 22%의 사료를 급여하고, 3주령부터 출하 시까지는 16% 수준의 단백질 사료를 급여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

### 종오리 사료

종오리 사료는 산란오리 사료와 사료 프로그램, 기본 영양소 함량은 거의 유사하나, 종란으로부터 새끼오리가 태어나고, 부화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 등의 일부 영양소가 더 함유되어 있다.

### 배합사료의 형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사료 형태는 크럼블과 펠릿 사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화 후 1주령까지 급여하는 어린 오리 사료만 크럼블 사료 형태이고, 이후에는 대부분 펠릿 사료 형태로 공급한다. 오리는 부리 형태, 섭취 행동 등으로 허실이 많기 때문에 가루 사료 형태는 일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 크럼블 사료

펠릿 사료를 다시 거칠게 분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크럼블 사료를 사용하면 기호성과 소화율이 높아지지만, 생산가격이 비싸지는 단점이 있다.

### 펠릿 사료

펠릿 사료는 사료로부터 유래하는 먼지를 막고, 사료의 부피를 줄일 수 있다. 가축의 사료섭취량을 높이는 목적으로 배합된 가루 사료를 성형기에 넣어 고온, 고압 하에서 단단한 알갱이 형태의 사료로 만든 것을 말한다. 펠릿 사료의 장점으로는 사료 섭취량과 사료 이용 효율 및 기호성 증진, 영양소 불균형 및 사료 허실 발생 예방 등이 있으며, 가공 과정에서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 과정에서 비타민 등 열에 약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고, 생산·가공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 자동 급이기 사용 시 주의사항

오리 사육시 대체로 이용하고 있는 자동급이기는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오리가 동시 급식할 수 있어 스트레스 방지 및 밀집에 따른 피해 방지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사료 급이기 이상 시 문제점이 발생하면 사료 섭취량 감소에 따른 증체량 감소로 이어지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료 급이기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 사료량 조절

사료의 급이량은 대부분 부피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료 입자의 분쇄정도에 따라 부피의 차이가 생기고 기온의 변화에 따라 사료섭취량이 변하므로 기온에 따른 사료량의 조절이 필요하다.

### 급이 상태 확인

한쪽 모터가 고장이 났거나 사료가 덩어리져 구멍이 막히거나 이물질이 들어가 막히게 되면 한 쪽은 계속 급이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폐사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매일 급이기의 이상 유무와 급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사료 분리현상

오리사의 길이가 길어지면 급이 하는 동안 영양성분이 분리되어 급이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영양 성분의 함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급이 속도가 느리면 편식이 더 일어나지만 사료분리는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속도가 빠르면 편식은 감소되지만, 사료 분리가 증가한다. 특히 입자가 굵은 사료는 그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체인 급이기의 부분별 사료 분리 현상

구분	칼슘(%)	인(%)	단백질(%)
급이라인 전반부	4.5	7.6	8.2
급이 1/4부분	8.5	9.1	0.62
급이 2/4부분	0.7	0.73	0.78
급이 3/4부분	0.82	16.8	21.8
급이라인 후반부	18.8	19.9	17.8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